

# G7서 외교무대 데뷔전 치르는 이 대통령... 트럼프와 양자회담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취임 11일 만에 다자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실제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가능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G7 회원국 외에도 참관국 정상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서방 중심의 선진국 7개국 모임이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 견제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중국·러시아·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

李 참관국 자격으로 '확대정상회의' 세션 참석할 듯  
미국 대중국 견제 동참 압박에 어떤 입장 낼지 주목  
트럼프와 양자대화 가능성도... 관세·주한미군·방위비 촉각

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동참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에 앞서 중국을 겨냥한 무역 불균형 및 비시장 정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장관들은 대만 인근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관련해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지키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균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불필요한 적을 두지 않겠다는 외교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직 않는 외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다수 나올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역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한미 정상 회동을 비롯한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경우 다자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돌아가며 회담을 진행해 한미 정상 간 양자 대화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앞서 지난 6일 20분가량 진행된 첫 한미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시급한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관심을 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재조정, 북한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다루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형식으로도 만나서 대화는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통화는 상견례 성격이었지만 대면 만남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분야에서 각종 청구서를 내릴 수 있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시스

## 국민의힘, 대선 패배 이후 계파 분화... "친윤계 실체는 이제 없다"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 계파 재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내 최대 계파였던 친윤(친윤석열)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분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전후로 당의 리더십 구도도 일정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뉴스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간 친윤계로 불리던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당 대표 후보와 당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친윤계의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친윤계'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다.

당의 일부 재선 의원들이 지난 1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대선 국면 김문수 체제에서 임명된 김 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던 권영진·강민국·김승수·조정훈 의원 등을 비롯해 재선 의원 30명 중 절반가량이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지지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언석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대리전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의

친윤계 재선들 '김용태 혁신안 지지' 발표  
송언석, 원내 선거 계파전 전망에 "계파는 없다"  
"친한계는 일부 있지만 친윤계는 이제 사라져"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구도 재편 주목

원이나 저나 특정 계파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저는 윤산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차관 출신 인사와 경선까지 치렀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붙어있던 '친윤' 꼬리표를 떼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친한계 간 갈등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친한계는 활동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계파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계파 구도는) 친한 대비(非)한"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친한계는 몰라도 친윤계라는 실체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일축했다.

한편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굳이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당내 권력 구도 변화 조짐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앞서 '친한계 좌장'으로 불리며 원내대표 추대론이 제기됐던 6선의 조정래 의원

은 본인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친한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당대회에) 나가야 한다"가 6이면 '절대 나오면 안 된다'가 4 (정도)"라며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고 당 개혁안도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당내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사분오열하면서 대야 투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야당으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당 전체가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의석수도 부족하는데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으면 이재명 정부 전횡을 막아낼 능력도 없고, 국민이 점점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시스

## 김영록 전남지사 "새정부·DJ 평화의 길에 함께 하겠다"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메시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민족 화해와 협력의 대전환을 이뤄낸 평화의 약속을 되새기며 "평화로운 한반도 미래를 차근차근 일궈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농수산·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고, 작은 교류부

터 정성껏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년 전 평양에서 당시 김대중(DJ)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해의 약속을 나눴던 그 역사적 순간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남북 관계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모든 소통의 창구가 끊어진 채 침묵의 강을 건너야 했고 군사적 긴장도 날로 높아져 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는 기치 아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6·15 정신의 계승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처럼 전남도 역시 그 평화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산가족 상담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농수산, 문화, 예술 등 생활밀착형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민주, 원내부대표단 16명 구성... 비서실장 이기현 임명  
신설 민생부대표·원대 지원실장에 김남근·윤종균 발탁  
운영·정책·소통 3수석 체제... 원내대변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16명의 신임 원내부대표를 내정하고,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등 16명의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이중 김남근 의원은 신

설된 민생부대표로 지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인선에서 첫번째로 고려한 것은 전문성과 능력"이라며 "상임위를 비롯해 선정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인망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인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

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국정 이해도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상임위,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고려해 인선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이기현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김 원내대표 체제에서 신설된 '원내대표 지원실장'에는 윤종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은 김현정·문금주·백승아의 의원, 신임 원내운영수석은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은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은 박상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뉴스시스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이 글의 광고는 한국인본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